

민선8기 남원시,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 정책 추진

남원시가 민선 8기 장애인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일자리, 차별 방지정책, 인권침해 방지책,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적극 대응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노력

남원시는 2022년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연면적 1,090㎡, 지상 3층)를 장애인 어울림센터로 리모델링해 관내에 흩어져 통합 업무 추진이 어렵던 장애인단체 8개소, 보장구수리센터 등을 통합 입주시키는 한편 교육장 및 다목적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의 교육, 회의 추진에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내 전동보장구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 노인(49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사업 시행을 통해 2025년 현재 보장 금액을 전국 지자체 최고 7,000만원(본인 부담 없음)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37만1,000원의 보험금을 보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및 지원예산을 지속 증대해 왔으며, 2025년 현재 23가구에 8,360만원을 지원해 등록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출입로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 노력

남원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5개 사업을 운영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대상자는 2023년~2025년까지 12명 증가했다.

현재 총 15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는 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37개소에 49명,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보건지소, 도서관 등 34개소에 76명, 특화형 일자리는 33명이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한마당



수어 퍼포먼스



수어 경연대회



장애인 보행환경 체험

▲장애인 차별 방지와 각종 돌봄서비스 추진
남원시에서는 교육, 고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6월과 9월 2회 시청내 직원 1,524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한층 기여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29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3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180명),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60명) 제공 등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추진

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를 지난 4월 제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심한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비 자부담금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투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역사회 자립 정책

남원시는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범죄 피해 예방 및 수사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법률 자문 및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찰과 정기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사업으로 재가 여성 장애인 CCTV 설치

사업을 시행, 2020년부터 총 94대를 설치 완료하면서 성범죄 등에 더욱 취약한 여성장애인 보호에 힘써오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 다양한 지원 추진

남원시 관내에는 총 11개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 있으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주 또는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가 보아나오는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편한세상과 평화의 집,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22년 이후 총 2억7,900만원을 들여 기능보강 완료해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시설 내 종사자의 급여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종사자 31명에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해 종사자 근로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



여성 장애인가구 CCTV 설치

장애인 편의 위한 노력 지속

장애인일자리 5개 사업 운영

근로 통한 소득 향상 도와

장애인식 개선 통한 차별 방지

생활안정 위한 신규 시책도

인권 침해 방지... 자립에도 힘써

시설 지원·지역 내 장벽 해소

부 2026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 증축에 국비 2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138개 신청사업 중 증개축 분야로 전국 유일 선정된 쾌거로 추후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 내 장벽 해소

남원시는 각 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보행환경 체험’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의회 및 2025년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민분과 주최로 제95회 춘향제 축제 구간 내 휠체어 및 흰 지팡이 보행 체험을 통해 장애인 보행 시 불편한 점을 직접 조사, 체험하여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2025년 6월 관내 59개소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현황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시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 차량 22대, 저상버스 4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있으며, 추후 저상버스 5대 추가 도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불어와요
”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갈 자신감으로부터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조상완	남부안농협	조합장	최우식
부안농협	조합장	김원철	면산농협	조합장	김명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	신정식	하서농협	조합장	기세원
계화농협	조합장	이석훈			